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장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대학교 위치는 마닐라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했던 곳은 클락공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수빅이라는 지역이었다. 규모는 건물 5층 건물이고, 식당이 따로 있고, 수영장이 작은 게 있다. 5층 건물에는 기숙사와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평범한 기숙사 같은 분위기였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매일 수업이 진행된다. 주말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수업방식은 1:1수업 3번, 나머지 5번의 수업은 5명씩 수준별 그룹 수업으로 진행된다. 과제는 거의 없는 편이긴 하지만 만약에 과제가 있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과제만 있다. 광고2편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만 그나마 비중이 있는 과제이다. 수업종류로는 듣기, 말하기, 발음, 문장 만들기, 단어배우기, 독해 등의 수업이 있다. 다양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강사들은 정말 최고였다. 모두가 굉장히 친절하다. 내가 영어를 하다가 버벅 거려도 끝까지 경청해주고, 내 문장이 틀리면 그 문장을 알맞게 고쳐준다. 한달 간 수업을 들으면 강사 이상의 정을 나눌 수 있다. 정말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이시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요트투어와 안바야 코브라는 리조트를 가는 활동이 있다. 둘다 추가적인 비용은 없었다. 요트투어는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물놀이도 하고, 치킨도 먹고 하는 활동이고, 안바야코브 리조트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리조트에 가서 수영장 물놀이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바다에서도 물놀이를 하는 활동이다. 안바야 코브 레스토랑에서 망고쉐이크를 꼭 먹어보길 추천한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나는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필리핀에 다녀왔다. 이때는 필리핀 날씨로 건기인 날씨이다. 나는 매우 더울 줄 알고, 나시를 많이 챙겨갔었는데 나시는 거의 입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한 편이었다. 날씨는 우리나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날씨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수빅은 정말 안전한 지역이다. 안전문제는 걱정할 필요없다. 다만 수빅에서 조금 떨어진 올랑가포라는 지역이 시내 쪽인데, 이쪽을 다닐 때는 가방에 조금 신경쓸 필요가 있다.</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는 정말 나쁜 편이었다. 매일매일 손가락보다 큰 바퀴벌레가 나왔고, 재미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다. 눈을 뜨면 천장에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기숙사 속에서 먹을 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먹더라도 흘리지 말고, 쓰레기는 그때그때 밖에다가 버려야 한다. 바퀴벌레는 나라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 에프킬라 같은 벌레약을 많이 챙겨가길 바란다. 벌레문제 말고는 괜찮았다. 시설도 꽤 큰 편이었고, 화장실도 나름 잘 되어있다. 하지만 휴지는 개인지참이다.</p> <p>규칙은 외출을 하더라도 통금이 10시이기 때문에 10시까지 기숙사로 복귀하는 것이다.</p>
식사	<p>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정말 식사가 최고였다. 나뿐만아니라 모두가 만족하는 부분이었다. 한국에서 한식당을 차리면 줄서서 먹을 만큼 대박을 칠만한 요리 솜씨를 갖고 있는 셰프가 요리를 해주신다. 굉장히 친절하시고, 요리도 정말 잘하신다. 매일매일 3끼가 한식이기 때문에 음식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오기 싫어질 수도 있다.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수업은 기숙사와 같은 건물에서 들어서 딱히 교통이 필요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시내로 나가고 싶으면 FB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13페소(300원정도) 밖에 하지 않아서 굉장히 저렴하다. 시내교통은 좋은 편이다. 동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전지갑을 지참하면 편리하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기념품, 간식	50만원	
합계	1,235,4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레 퇴치 스프레이 많이 챙겨가기. -수영복 꼭 챙겨가기 -환전 꼭 많이 해오기 (400불 정도가 적당)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영어 듣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 매일매일 영어를 하루 종일 사용하며 공부를 하니 영어 실력 향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선생님들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정말 많은 생각을 공유했다.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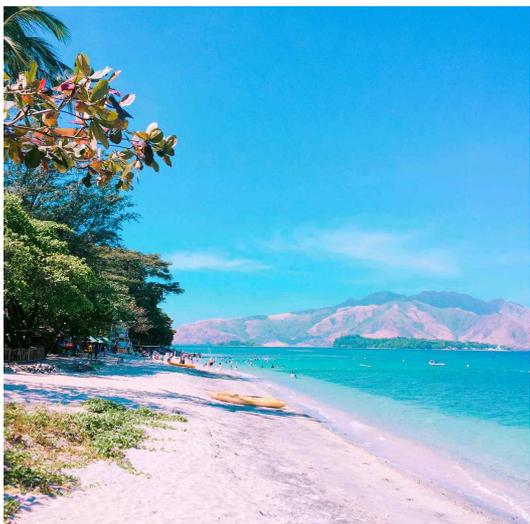
한달간 필리핀에 살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비치도 많이 다녔고, 리조트, 요트투어, 시내관광 등 여행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필리핀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현지인들처럼 구경도 다니고 했다. 한 달 동안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없다. 매일 매일이 행복했고, 매일 매일이 신이 나고 재미있었다.

나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매일 영어를 사용하며 한달 간 생활을 하니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기회만 된다면 한 번 더 SLC에 가서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

정말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사진은 내가 필리핀에서 갔던 비치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비치다. 까마얀 비치라는 곳인데 입장료 500페소에 마음껏 놀 수 있는 비치다. 굉장히 물도 깨끗하고, 파랗다. 입장료가 있어서 도둑들도 없고, 안전하다.



테라스 호텔이라는 루프탑 수영장이다. 입장료가 300페소인데 수영장에서 300페소 어치의 식사를 공짜로 할 수 있다. 사실상 음식 값만 내고 수영을 하는 것이다. 수빅베이 쪽에 위치하고 있다.



SLC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시티투어를 하며 갔던 수빅베이이다. 해가 질쯤에 갔었는데,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고, 아름답다.



안바야코브 리조트에서 찍었던 야자수 사진이다. 수영복이 꼭 있어야지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 수영복을 필수로 챙겨야 한다.



기숙사 사진이다. 생각보다 방이 굉장히 넓다.